내가 왜 떴게?

남자는 핑크다



이홍기

●FT아일랜드 이홍기, 핑크 : FT아일랜드의 이홍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 이홍기는 음료수가 담긴 컵을 손에 들고 빨대로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의상이 범상치 않다. 머리에 쓴 비니와 바지가 핑크핑크하다. 심지어 컵 안의 음료수도 핑크색. 이홍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핑크. 토마토주스까지 연핑크"라고 글을 덧붙였다. 그렇다. 남자는 핑크다. 일본 투어에 나서는 FT아일랜드 앞에도 핑크빛 꽃길이 깔리길.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



지민

●AOA 지민, 한국사 : AOA 찬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뒤늦게 화제다. 영상을 보면 찬미는 같은 AOA 멤버 지민의 자취방을 방문했다. 그런데 무심코 찍힌 책장에서 눈매 날카로운 누리꾼들이 한국사 관련 책들을 발견한 것. 지민은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지민은 "부끄럽지 않을 역사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성했다. 틈틈이 한국사 책을 보며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회에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이쯤 되면 표절이 직업?



'전참시'표절한 중국 예능

●중국, 전참시 표절 : 중국 방송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표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예인과 매니저의 일상을 다루는 '나와 나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다. 제목과 콘셉트만 봐도 딱이다. 이밖에도 '미운 우리 새끼', '나는 가수다', '삼시세끼' 등이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러다가 '내가 왜 뗬게'도 표절하는 거 아녀?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우승자가 연못에 뛰어드는' ANA 인스퍼레이션 오늘 개막 | '여제' 박성현 폭소탄 인터뷰

"난 수영 못해…물 깊으면 빠져죽을지 몰라"

1994년부터 '연못에 풍덩' 전통으로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박성현 위트있는 대답에 인터뷰장 웃음바다 박인비 LPGA 개인 통산 20승 재도전



세계랭킹 1위 박성현이 올 시즌 LPGA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노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공식인터뷰에서 "수영을 못 해 물이 깊으면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승 후 호수에 뛰어드는 세리머니가 전통인 이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차지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있었다. 뉴시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2019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이 4일(한국시간) 개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벌어지는 이 대회는 우승자와 캐디,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18번홀 부근의 연못(포피스 폰드)으로 뛰어드는 것이 1994년부터 이어온 전통이다. 시작은 1988년의 애미 앨콧이었다. 우승으로 흥분한 나머지 캐디와 함께 물로 뛰어들었다. 이후 몇몇 우승자들이 따라하다 1994년부터는 대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역대 우승자 가운데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유일하게 수영선수처럼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다이빙을 했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호수에 뛰어드는 기록을 남겼다. 대부분 선수들은 발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점프를 하는데 수영을 못하는 선수들은 공포심도 느낀다.

개막을 앞두고 LPGA투어는 3일 참가선수들의 공식인터뷰를 진행했다. 5주째 세계랭킹 1위 박성현(26·솔레어)도 마이크 앞에 섰다. 통역을 두고 벌어진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번 주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박성현은 "당연히 우승이다. 메이저대회고 이기기 위해서 대회에 맞춰 준비해왔다"고 대답했다. 사회자는 "목표가 우승이라면 수영은 할 줄 아는가"라고 또 물었다. 그러자 박성현은 "수영을 못한다. 만일 물이 깊으면 빠져죽을 지도 모른다(No, I don't know how to swim, and so if the level is deep then I might drown)"라고 대답했다. 순간 행사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박성현은 올해가 ANA 인스퍼레이션 4번째 출전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9위, 2016년에는 6위를 했다. 지난해 2라운드에 무려 64타를 치며 공동선두까지 치솟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우승에 실패했다. 지난주 기아 클래식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번 시즌 꾸준한 성적을 내왔던 박성현은 LPGA 홈페이지의 대회소개용 'ANA 인스퍼레이션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로 언급됐다.

기아 클래식에서 공동 2위를 했던 박인비(31·KB금융그룹)도 개인통산 20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1박2일 동안 벌어진 8차 연장전에서 페르닐라 린드베리(33·스웨덴)에게 패한 설욕전을 꿈꾸고 있다. 당시 박인비는 제니퍼 송(30·미국) 등과 3명의 연장전을 벌였다. 제니퍼 송은 3차 연장전에서 탈락했다. 5차 연장전까지 벌어진 두 사람의 대결에서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일몰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 1박2일 경기가 됐다. 다음날 10,17,18번 홀을 돌며 벌어진 연장전에서도 승패를 가리지 못한 두 사람은 파4 10번 홀에서 다시 벌어진 8차 연장전에서 운명이 엇갈렸다. 2번의 샷으로 모두 그린에 올린 가운데 박인비의 공은 홀에 5m, 린드베리의 공은 7m 떨어져 있었다. 연못행의 주인공 린드베리는 192번째 대회에서 거둔 첫 승리가 메이저대회에서 박인비를 꺾는 것이어서 더욱 화제의 인물이 됐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엄친아' 로이킴도 '정준영 대화방' 불똥

불법 영상물 유포 가담 여부 등 조사
슈주 팬, 다른 대화방 강인 퇴출 요구



로이킴



강인

하루가 멀다 하고 '정준영 카톡방'과 관련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물을 올린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의 멤버로 지목된 연예인들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는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가수 로이킴(김상우·26)이 정준영의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한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로이킴이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의 '절친'으로 알려진 로이킴이 단순히 대화방에 오른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아니면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로이킴이 데뷔 이후 줄곧 '엄친아' '모범생'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슈퍼주니어 강인(김영운·34)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강인은 정준영의 구속에 결정적 증거가 된 단체대화방이 아니라 또 다른 대화방의 멤버로 거론돼 비난을 받고 있다. 2016년 정준영을 포함해 2AM 정진운, 모델 이철우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슈퍼주니어 팬들은 팬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 음주운전과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강인의 퇴출을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레이블 SJ도 이날 "프로그램 출연자 대화방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3년 전이어서 대화방이 이미 없어졌고, 다른 출연자가 무엇을 올렸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기억할 수 없으나,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도 "현재 정진운이 군 훈련소에 있어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ag.com

이른 개막·꽃샘추위…KBO리그 부상자 속출

구창모·베탄코트·박병호·하주석 등 대부분 경기 아닌 추위 속 훈련 원인
감독들도 "개막 늦춰야" 한목소리



박병호

베탄코트



한동민



나성범



이범호



하주석

부상자 명단으로만 국가대표급 타선을 꾸릴 정도다. 어느 팀이든 '완전체'로 시즌을 꾸리기는 어렵지만,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 KBO리그는 역대 가장 빠른 개막에 평년을 훌쩍 웃도는 '꽃샘추위'가 겹치며 줄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3일까지 리그에서 부상에 자유로운 팀은 손에 꼽을 정도다. 부상자로만 투수 구창모(내복사근 손상) 포수 크리스티안 베탄코트(이상 NC 다이노스·햄스트링), 1루수 박병호(키움 히어로즈·허리), 2루수 박민우(NC·오른 허벅지 염좌), 3루수 이범호(KIA 타이거즈·햄스트링), 유격수 하주석(한화 이글스·십자인대 파열), 외야수 한동민(SK 와이번스·왼 고관절 관절와순), 나성범(NC·내복사근 파열), 이성열(한화·오른 팔꿈치 미세손상), 지명타자 최주환(두산 베어스·내복사근 손상) 등 '국가대표급' 라인업이 나온다. 이들 중 박병호만 1군에 머물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2군에서 재활 중이다.

경기 중 나오는 부상이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시즌 초반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을 지속하면 부상 확률은 높아진다. 올 시즌은 11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개막으로 인해 역대 가장 빠른 3월 23일에 시작됐다. 하지만 4월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체감온도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설위원 A는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서 야구를 하는 건 '다치고 싶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러니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한동민을 3일 1군에서 말소시킨 염경엽 SK 감독은 "빠른 개막 시점에 대한 영향도 있다. 차라리 개막을 늦추는 게 낫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때도 추위로 힘들진 않았다. 예년보단 덜 추운 느낌이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도 "시즌 개막이 너무 빠르다. 추운 날씨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이 있다"고 했고, 한화 한용덕 한화 감독도 "개막은 빠르고 경기 수가 많다"고 꼬집었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